

송기숙 삶·문학 기리는 기념사업회 출범

지난해 별세한 '녹두장군'의 소설가 송기숙 선생은 '리얼리즘 문학'의 거목이었다. 남도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한국 소설문단에 큰 족적을 남긴 문단의 큰 어른이었다. 또한 교수(전남대) 재직 시절에는 많은 후학들을 길러낸 올곧은 스승이기도 했다.



송기숙

1936년 장흥에서 태어난 고인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유신체제, 5·18민주화운동 등 격동의 현대사를 온 몸으로 겪은 산증인이었다. 송기숙의 창작활동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졌다.

그의 대표작 대하소설 '녹두장군'은 부패한 봉건사회를 향한 민중의 분노를 소설로 그린 수작이다. 작가는 힘 없고 이름 없는 민중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지 반문한다.

장흥 출신 송기숙의 삶과 문학을 현창하기 위한 기념사업회가 선생의 1주기를 앞두고 최근 꾸러졌다.

그의 대표작 대하소설 '녹두장군'은 부패한 봉건사회를 향한 민중의 분노를 소설로 그린 수작이다. 작가는 힘 없고 이름 없는 민중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지 반문한다. 장흥 출신 송기숙의 삶과 문학을 현창하기 위한 기념사업회가 선생의 1주기를 앞두고 최근 꾸러졌다.

(사)송기숙기념사업회가 지난 21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시인인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를 이사장으로, 백형갑 전 장흥읍장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했다.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기념사업회 창립을 위한 경과보고에 이어 법인명칭, 설립취지, 정관 등이 채택됐다. 이어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법인 조직 및 상근 임원직 정수 책정 등 주요 안건 등이 의결됐다.

또한 이사로는 김선옥, 김기정, 김동욱, 마동욱, 백형갑, 최경석, 이영송, 이영동, 조규정 등 모두 9명이 선임됐으며 감사에는 유용수, 양기수가 선임됐다.

백수인 이사장에 따르면 당초 기념사업회는 지난해 선생의 별세 직후 장흥 문인들을 비롯한 문



소설가 송기숙의 삶과 문학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회가 최근 장흥에서 꾸러졌다. <송기숙기념사업회 제공>

리얼리즘 문학 거목... 1주기 앞두고 창립총회, 이사장 백수인 시인 이달 중 생가마을서 기념제도 계획... 5일, 5·18민주묘지서 추모식

화인들의 공감대가 있었다. 이후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몇 차례 더 만나 의견 등을 조율해 기념사업회 창립의 결실을 이루어냈다.

백 이사장은 "이달 1주기 이전에는 기념사업회를 꾸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이어받은 이들의 작은 불씨가 전국 문학계와 각계각층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창립 이후 올해 첫 행사로 11월 25일 송기숙 문학제를 개최했다. 장흥동학기념사업회와 장흥 문화공작소 등 문화단체와 함께 마련한 행사에는 '송기숙 선생 문학 이해 워크숍'과 '전남 청소년 백일장 공모전'이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순천대 최현주 교수가 '녹두장군'을 중심으로 한 송기숙 문학세미나-녹두장군 이야기'를,

전남대 조은숙 박사가 '송기숙의 삶과 문학'을 주제로 강연했다.

기념사업회는 올해 안에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송기숙 기념제'를 개최한다. 고인의 생가가 있는 용산면 포곡마을회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1주기를 맞는 오는 5일(오전 11시)에는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1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이번 추모식은 고인을 기억하고 그의 유훈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광주·전남민주화운동지회, 광주·전남소설가협회, 광주·전남작가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5·18기념재단, 전남대 5·18연구소, 한국작가회의 등 고인이 생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단체들이 참여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린 작 '각시꽃'



김찬희 작 '붉은 동백'

그림과 한복이 어우러져 '의복미화'

김찬희·임린 2인전, 10일까지 양림동 갤러리S

키라, 난초 등 꽃과 나비가 화폭에 펼쳐지고, 한복 위에 내려 앉았다.

아름다운 우리옷과 그림이 어우러진 이색 전시회가 열린다. 오는 10일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동 갤러리S(서서평로 2)에서 열리는 서양화가 김찬희 작가와 한복 작가 임린의 2인전 '의복미화(懿服美畫-아름다운 옷과 그림)'이다.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두 사람은 한국 복식의 아름다움에서 오는 동양적 영감과 화려한 색채의 서양화가 주는 생동감을 '한 공간'에 펼쳐놓으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줄지 호기심이 일었다.

또 전통과 현대라는 장르가 갖고 있는 경계도 허물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전시를 준비하며 두 사람은 꽃과 나비라는 공통 테마를 정하고 각각의 작품에 다양하게 풀어냈다. 김 작가는 양귀비, 아이리스, 동백 등 다양한 꽃을 주제로 삼았다. 화려한 색채감이 눈에 띄는 작품들로 자유로운 필치와 여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 등이 눈에 띈다.

또 골무, 원앙, 색동 복주머니, 꽃신 등 전통적

소재를 적극 차용한 덕에 전시장에 함께 놓인 한복과 어우러져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임 작가는 전통적인 한복 제작 방식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입혔다. 옷 자락에 러플을 달아 화려한 꽃의 느낌을 강조했고, 전통민화 속 꽃을 포토샵으로 작업해 디지털 프린팅 작업을 한 후 한복에 적용했다. 또 한복 위에 입는 털 배자에 미크 털을 달기도 하고, 한복 패턴을 그대로 활용하며 청 대님들을 곁들이는 등 현대적 느낌을 가미했다.

두 작가는 서로의 작품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앞으로 좀 더 확장된 콜라보 작업을 진행해 볼 생각이다.

전남대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한 김찬희 작가는 3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KIM행의 작업실 대표다.

임린 작가는 전남대 의류학과를 마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광주여자대학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광주, 런던,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작품전을 가졌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송수권시문학상에 고재종 시인 '고요를 시창하다'

담양 출신...상금 3000만원

제6회 송수권시문학상에 담양 출신 고재종(사진)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시집 '고요를 시창하다'이며 상금 3000만원.

심사위원들은 수상작에 대해 "송수권 시인의 시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간과 사회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는 시적 진일보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로 선정했다"고 평했다.

올해는 지난 9월부터 2달간 총 191편이 접

수됐으며 예심을 거쳐 32편이 본심에 올랐다.

1984년 실천문학을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한 고재종 시인은 시집 '알강도 아위는 이그리움', '그때 휘파람새가 울었다', '꽃의 권력'과 시명집 '시를 읊자 미소 짓다' 등을 펴냈다. 소월시문학상, 영광시문학상, 신동엽문학상, 녹색생명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올해의 남도시인상은 우동식 시인의 '여수 동백의 노래'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상금 500만원.

고흥군이 주최하고 송수권시문학상운영위

원회가 주관하는 송수권시문학상은 남도의 전통 서정시인 송수권 시인의 문학적 성과를 알리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5년 제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후 3시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구수환 이사장·최연혁 교수 토크콘서트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주제... 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시사 고발 PD와 스웨덴 정치학자의 만남'

(사)이태석재단 구수환 이사장과 스웨덴 린네대 최연혁 교수 토크쇼가 오는 5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신을 극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다류 '울지마 톤즈'에서 이태석 신부가 보여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비롯해 세상 낮은 곳으로 향하는 공감과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이기도 하다.

구수환 이사장은 'KBS 추적 60분' PD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으며 이태석 신부를 다룬 다류 '울지마 톤즈'를 제작하기도 했다. 또 KBS에서 다류멘터리 '행복국가를 만든 리더십'을 제작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최 교수는 스웨덴 대학에서 30년 동안 정치학 교수로 지내며 선진국의 정치와 국가지도자를 연구한 리더십 전문가다.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민주주의가 왜 좋은가' 등을 펴냈다.

(사)이태석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선착순 70



구수환(왼쪽) 이사장과 최연혁 교수

명 모집하며 참배우터(010-9601-8188)로 문자나 전화하면 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내년 신규 청소년 단원 공개모집 12~15일 접수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내년 신규 청소년 단원을 공개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남녀 구분 없이 광주시 거주 초등학교 4학년부부터 고등학교 2년까지로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부터 응시할 수 있다. 접수는 12월 15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응시원서와 자유곡악보 1부를 이메일(5291125@naver.com)로 제출

하면 된다.

17일에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에서 실기 오디션과 면접을 거친 뒤 22일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단원으로 활동하며 예능활동 지원금, 단복 및 간식, 음악캠프 및 워크숍 비용, 각종 초청공연 체제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음악·영

어 교육 프로그램 무료 수강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정기 연습은 학기 중에는 매주 화·목요일(오후 6시~9시)까지며 방학 중에는 매주 월·금(오전 10시~오후 1시)까지다. 응시원서 내려받기 및 자세한 사항은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김세진 작 '도시의 밤 - 별을 보다'

청년들의 열정과 도전 '함께 숨쉬기'

KPX 한국전력거래소·한국청년문화예술인협회 '아트페어'

16일까지 한국전력거래소

지역 청년 작가들을 응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의 향기를 전하는 아트페어가 나주 혁신도시에서 열린다.

KPX 한국전력거래소와 (사)한국청년문화예술인협회는 오는 16일까지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거래소 1층 로비에서 아트페어 '함께 숨쉬기(Breath Together)'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사)한국청년문화예술인협회는 청년들의 열정과 도전을 상징하는 단체로 회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청년작가들이 의기투합, 활동 영역을 넓히고 지역과 발전을 도모하는 공생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시에는 강동호·강지향·김보배·김세진·나지수·노여운·박기태·이경은·이선우·임준형·정유승 등 (사)한국청년문화예술인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작가 11명이 참여했다. 또 박정용·박형우·심은석 등 초대작가 3명도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작은 모두 177점(조각 15점, 회화 112점, 공예 50

점)이다. 이번 아트페어는 진입장벽이 높은 기존 아트마켓의 대안적 형태로, 우수한 청년 작가들에게 미술시장 경험을 제공하고,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 소비자에게는 작품 감상과 함께 예술작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획이기도 하다.

전시를 기획한 조수선 학예연구사는 "주제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아트페어는 우리가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공존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획"이라며 "공존을 바라보는 14명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을 함께 공유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진 한국청년문화예술인협회 회장은 "이번 아트페어는 청년들이 지역의 문화 콘텐츠 창출을 주도하고 또 지역내에서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젊은 문화 소비 트렌드가 만들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